

멀고도 돌아올 수 없는 '길' ... 지나간 길은 바람이 지우리

글 신기에 앞서...

주 노르웨이 대사와 주 LA 총영사를 역임한 최병호 전직 외교관(사진)이 최근 지리산 주변을 둘러보고 기록한 여행기를 본보에 보내왔다. 지리산의 큰 품에 기대어 오랜 세월 민중들과 삶을 함께 해온 화엄사와 천은사, 노고단, 실상사 등 천년고찰과 구례 남원의 관광명소를 예리한 관찰력으로 기록한 여행기를 매주 금요일마다 세 차례에 걸쳐 신는다.



/편집자 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의 연휴에 임실 산소를 찾았다. 봉분들을 수년 전 평장으로 바꾼 후 여유로워진 묘소에 심었던 주목과 반송, 빛나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모두 시들어 사라졌다. 그러나 수십년 묵은 배롱나무와 모과, 감나무들은 여전한 모습으로 '삼경취황 송국유존(三迳就荒 松菊猶存)'이었다.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돌아온 시골 옛집 정원의 세갈래 오솔길은 잡초로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히 : 도연명의 귀거래사중 일부)

산소에서 예를 마친 후 차로 1시간여 거리의 지리산 노고단 아래 구례 천은사에 들렀다.(泉隱寺: 828년 덕운선사와 인도 승려 '스루'가 창건, 화엄사의 말사) 일주문을 지나니 계곡 위 무지개 다리 위에 경충 서있는 모습의 수흥루(垂虹樓)가 나타났다. 세월의 풍상을 많이 겪지는 않은 듯 좀 가볍게 보이나 그래서 신록에는 어울리는 그 누각 아래로 다리를 건너니 오래된 샘을 보호하는 정자가 보였다. 정자 지붕 위로 기왓장을 부수며 쓰러진 큰 나무 때문에 접근 금지라서 샘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는데 그 숨은 샘과 관련한 설화가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정유재란)으로 절이 피해를 입어 불탄 뒤 중건할 때, 샘에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 잡아 죽였더니 샘이 솟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샘이 숨었다는 뜻으로 천은사라고 바꾸자 그 뒤로 원인 모를 화재와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절을 지키는 구렁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두려워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교 이광사(貞曠李匡師, 1705~1777, 조선 4대 명필의 한 사람)가 지리산 천은사라는 글씨를 물 흐르듯 듯한 서체로 써서 일주문 현판으로 걸었다니 그 뒤로 재앙이 그쳤다"

지난해 9월 '김승용의 마르코 글방'에서 고창 선운사 답사시 신복룡 교수님 소개로 알게 된 원교의 글씨를 다시 접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원교체로 알려진 그의 글씨는 물 흐르듯 자유분방하고 거침없어 수체(水體)라고 부르는 이도 있는데 강인하면서도 좀 빼직한 모양이었던 역모=국가보안법에 걸려 오랜 고초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서체와 실용적인 양명학이라는 자신의 학문세계를 재에서 추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본다. 원래 전주 이씨 왕가 출신으로 조부는 호조판서였고, 예조판서를 지낸 부친은 노론 태파에 앞장 서다가 처형을 당했으며 그도 소론이 실각함에 따라 평생 벼슬도 못하고 지내다 대사성을 역임한 백부가 집권 노론파를 축출하려는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자 같이 역모혐의를 받아 50세에 귀양을 가서 22년의 긴 귀양살이 끝에 안도군 신지도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니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이다. 딸은 요절하고 부인은 자결하는 등 험난한 인생길을 귀양 생활로 보내며 정경이 아닌 도를 이루겠다는 집념으로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조선의 고유한 서체를 완성하고 양명학으로도 높은 경지에 이르는 등 그 삶이 다산 정약용(1762-1836)과도 비교된다고 한다. 그가 유배길에 부인의 자결소식을 듣고 남겼다는 애도시는 한의 극치라고 할 것 같다.

"내가 비록 죽어 빠져 재가 될지라도 이 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 내가 살아 백 번을 윤회한다도 이 한은 정녕 살아 있으리/ 천지가 뒤바뀌어 태초가 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연기가 되어도 이 한은 맺히고 더욱 굳어져 세월이 흐를수록 단단해 지리리/ 내 한이 이와 같으니 당신 한도 정녕 이러하리리/ 두 한이 오래도록 흠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 있으리."

역시 오랜 귀양생활을 하였으나 금수저 출신이라 큰 고초를 겪지는 않았던지 원만하고 자신감에 차서 매끄럽기까지 한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서체와 여러 면에서 비교되고 있다. 제주도 귀양 길에 해남 대흥사에 걸린 원교의 대웅보전 현판을 보고 조선의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에게 형편 없는 글이니 내리고 자신의 것을 걸라고 했던 추사가 귀양을 마치고 귀경 길에 들려서는 자기 것을 내리고 원교 것을 다시 걸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으니 대가가 대가를 알아보는 일도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하서 박원규의 오랜 교유를 통해 서예세계에 가끔씩 접했을 뿐 글씨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추사와 원교의 글씨를 평할 안목은 없고 그저 그들의 글씨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뿐이다. 세상사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알아야 될 것은 끝이 없으니 인생의 짧음을 아쉬워 할 뿐이다.

빛속에 잠시 둘러 본 천은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규모로 그리 높지 않은 뒷산 아래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오래된 기와지붕은 고향에 온 듯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었다. 절 뒤로 수백년된 소나무를 지나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 따라 걷고 싶었으나 인근 화엄사에 들를 계획이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지리산 노고단 아래 구례 천은사 수흥루 안 정자 뒤에 오래된 샘 조선시대부터 전해진 설화 것들이

화엄사 내에는 국보인 각황전 삼층석탑 등 유형문화재들 때 묻지 않는 아름다움 과시



화엄사 구충암 가는 길.

노고단으로 향하였다. 차로 1천여미터에 오르니 강해진 비가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더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휴게소에 머물다가 화엄사를 향해 내려갔다.

20년 가까운 세월 전 노고단을 거쳐 여러 개의 지리산 봉우리를 넘어 뱀사골로 내려 가는 등산 길 출발점으로 찾았던 화엄사(백제 성왕 때인 544년 인도 승려 '연기' 창건)는 그 때의 기억 속에서 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서 일본의 큰 사찰이 연상되었다. 입구 양쪽에 오사가 성 입구 벽을 이루는 엄청나게 큰 돌을 연상시키는 꽤 큰 돌들로 벽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였다. 왜란때 승병들이 요새로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귀경 후 이 글을 쓰는 중에 화엄사 승병들도 왜란 때 많이 죽었을 것이라는 어느 언론 칼럼을 우연히 접하였다. 사진을 검색해 보니 1597년 수만 왜병이 진주를 거쳐 하동에서 남원성으로 쳐들어올 때 길목인 석주관성(구례군 토지면) 전투에서 1천여명의 의병과 150여명의 화엄사 승병이 순사하였다고 하였다. 내 상상이 그리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화엄사 경내에는 국보인 각황전 건물과 그 앞에 역시 국보들인 국내 최대의 석등과 네 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삼층 석탑이 있고 그 옆의 보물인 대웅전 아래에는 동서쪽으로 보물인 두 개의 5층석탑이 있었다. 한 지점에서 국보 3점과 보물 3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었다. 경내에는 보리수와 배롱나무, 소나무 등 좋은 나무들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각황전 옆에는 숙종(1661-1720) 때 각황전을 증축하면서 심었다는 300여년된 홍매가 있었다. 진홍색 꽃을 피워 흑매라고도 불린다는데 매화를 보기에 너무 시일이 늦어 아쉬웠다.

어딜가나 이리저리 해탈하는 습관대로 절 뒤로 난 한적한 길을 잠시 따라 가니 몇 개의 절 건물이 있는 구충암에 이르렀다. 마주보고 서 있는 빨간 무늬 줄기를 가진 두 개의 잘 생긴 나무가 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눈에 많이 익었으나 무슨 나무인지 당최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하였다. 한참을 거니 후에야 바로 오전에 산소에서 본 모과나무임을 깨달았다. 뒤늦게라도 생각이 난다면 치매는 아니라니 감사할 뿐이었다. 구 부리진 목재로 된 그곳 건물의 기둥들도 모과나무라고 했다. 모과나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줄기와 잎새, 작은 꽃잎에 새삼 경의를 표하고 싶어졌다. 모과나무는 누구를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자태로 이 작은 암자를 지키고 있을까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일행을 떠나 혼자 뒷길을 찾아 온 보람이 있는 셈이다.

4월 말 성북동 주한노르웨이대사 관저에서 열린 노르웨이 시인 Olav Hauge(1908-94)의 한국어관 출판 기념 행사에서 접한 시 '길'이 생각났다. 시골 파수원 농부였던 시인은·도연명의 시에 크게 공감하여 그에 관한 시도 썼다고 한다.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스스로 걸어야 한다/ 모르는 곳으로/ 먼 길이다/ 길은 그런 것/ 오직 스스로 걸어야 한다/ 길은 돌아올 수 없다/ 어떤 길을 걸었는지/ 남기지 마라/ 지나간 처음의 길은/ 바람이 지우리"

/글: 최병호(주 노르웨이 대사, LA 총영사 역임)

*다음주 금요일자에 계속...



천은사 수흥루



화엄사 각황전과 그 앞의 석등 및 삼층사지탑.